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2.(목) 배포 시 배포 2026. 11. 12.(목)

경북 예천 소재 소(牛) 농장 예찰 검사에서 구제역이 확인되어 방역관리 강화

- 발생농장 출입통제·역학조사, 방역지역 임상·정밀검사 및 백신접종 관리,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일제 집중소독 주간 등 방역조치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2일(목) 경북 예천군 예찰 검사에서 소(牛) 농장 1호(47마리 사육) 구제역이 확인되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중수본은 이번 발생농장은 지난번 경북 예천 발생 2건(확진일 : 9월 3일, 10월 3일) 관련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하여 이동제한 등 관리 중인 소 농장으로 해당 방역지역 해제를 위한 예찰 검사과정에서 구제역 양성축 8두를 확인하였다.

※ '26년 발생(총 16건) : 경북 예천 10건, 경기 고양 2건, 인천 강화 4건

2.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11월 12일(목) 구제역이 확인되자 초동대응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둘째, 기존 발생지역인 경북 예천과 인천 강화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나머지 전국 시도·시군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셋째,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가용자원 58대를 동원하여 경북 예천과 인접한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단양 등 6개 시군의 농장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였다.

넷째,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역학 관련 농장 12개소, 도축장 449개소, 차량 5대에 대해 이동제한·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방역지역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방역지역 이동제한 연장, 백신접종 누락 개체에 대한 추가 접종 등을 관리하고 있다.

다섯째, 발생농장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증상이 없고, 정밀검사에서 높은 항체양성률 등이 확인됨에 따라 전문가 회의 및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구제역 양성축 8두는 방역조치* 전제하에 가축처분을 유예하되, 현장 시험 결과에 따라 전파 위험성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도태) 등을 추진하고, 추가 구제역 검출이나 감염항체(NSP) 증가 등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가축을 처분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 구제역 양성축을 격리하여 개별 우방 관리, 주기적 검사(환경 포함), 매일 소독 등

3. 방역대책 강화

첫째,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을 대상으로 11월 13일까지 일제 임상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2회 임상검사를 지속한다.

* 임상검사 1차 대상 외 나머지 전국 시군 우제류 농장은 지방정부와 방역본부에서 전화예찰 실시

둘째,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장·축산시설·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제 집중소독 주간』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발적인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구제역 특별대응 전담팀(TF)을 운영한다.

셋째, 생산자단체와 협조하여 전국 우제류 농장에 구제역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임상·전화예찰과 방역수칙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4. 당부사항

중수본은 “기존 발생지역인 경북 예천 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한 엄중한 상황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축산농장 예찰, 집중소독, 감염항체(NSP) 관리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고, “특히 발생지역은 관내 소·돼지 등 우제류 농장에서 누락 개체가 없도록 백신 접종, 외부인 출입통제, 농장 내·외부 세척·소독 등 차단방역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서기관	이병용 (044-201-25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